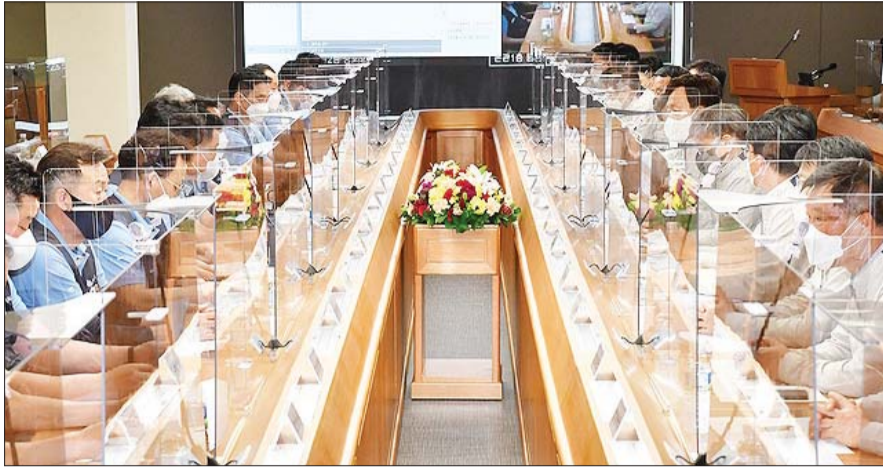


반도체 부족 이어 노사갈등... 앞친데 덮친 완성차업계

**현대 사측 2차 제시안 노조서 거부
기아 노사간 집단협 신경전 팽팽
한국지엠 노사 이견엔 파업 가능성
르노삼성 오늘 집단협서 돌파구 마련
쌍용 명운 걸린 M&A에 먹구름**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 26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으며 르노삼성자동차는 아직 교섭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올해 자동차 반도체 부족 사태 장기화로 생산 차질 영향을 치르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의 파업은 경영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을 일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대형인 현대차 노조와 사측은 집단협을 둘러싸고 좀처럼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를 2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집중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대차는 지난 16일 교섭에서 기본급 월 5만9000원 인상, 성과급 125%+350

만원, 품질 향상 격려금 200만원, 무상주 5주, 복지 10만 포인트 등을 포함한 2차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등의 제시안에 입장차가 크고 사측이 정년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의 2차 제시안은 앞서 1차 제시안 총액 1114만원보다 299만원 증가한 총액 기준으로는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다. 노조 측은 입장을 강경하

다.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기 직전인 만 64세까지 정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국내 일자리 유지를 위한 미래산업 협약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3차 교섭까지 불발될 경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을 비롯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아도 집단협을 놓고 노사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기아 노조는 매년 현대차 집단협 이후 사측에 제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사측

에 구체적인 제시안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신규인원 충원과 전기차 핵심 부품의 국내 공장 유지를 강조하며 5일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한국지엠도 집단협에 대해 노사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며 사측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파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한국지엠 노조는 부평공장(1·2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의 미래 계획, 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등 1000만원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월 기본급 2만원(생산직) 인상과 일시·격려금 350만원 지급 방안 등을 제시한 상태다. 부평2공장에 추가로 생산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교섭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 20일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이틀간 부산 공장 가동을 멈춘 르노삼성자동차도 노사갈등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르노삼성이 반도체 부족으로 부산 공장을 섰다운 시킨건 이번

이 처음이다. 만약 집단협을 둘러싸고 노조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할 경우 회사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르노삼성은 올해 XM3의 수출 물량 확대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르노삼성은 21일 재개되는 집단협 교섭에서 돌파구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인수·합병(M&A)에 먹구름이 끼었다. 쌍용차의 유력 투자자였던 HAAH으로 모티브가 조단간 파산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쌍용차의 새 주인 찾기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달 말 인수의향서 마감시한을 앞둔 쌍용차 입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집단협을 둘러싸고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며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량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파업까지 겹치면 올 하반기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부품 업체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한항공, 민항기 활용 공중발사체 연구

서울대와 함께 과제연구 착수

대한항공이 대형 민항기를 활용한 공중발사체 연구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최근 서울대학교와 함께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우주제가 발주한 ‘국내 대형 민간항공기 활용 공중발사 가능성 분석 연구’ 과제연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공동연구를 토대로 현재 운영 중인 보잉747-400 기종 항공기를 활용한 공중발사체 개발을 위해 ▲기술적 수준 ▲주요 적용기술 ▲연간 운영비용 ▲개조방안 등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상용화 방안까지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공중에서 발사하는 형태의 발사체 개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공중발사체의 개발과 운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연구가 의미를 갖는 것은 항공기를 활용한 공중발사체 개발이 대한민국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나로우주센터에서 위성을 발사할 경우, 일본과 대만 사이를 통과해야 하므로 남쪽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공중발사체를 이용하면 다양한 궤도로 발사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군·관·산업계에서 애타투어 소형 위성의 군집 운용 활용계획이 발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다수의 소형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 미흡하며, 지상발사는 지리적 한계로 다양한 위성의 수요를 만족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해의 발사체를 이용할 경우에도 계약에서 발사까지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양성운 기자

제24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삼성전자

3년연속 ‘에너지 위너’

삼성전자가 3년 연속 ‘에너지 위너’에 등극했다.

삼성전자는 ‘제24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8개 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 위너상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 생산과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후원한다.

삼성전자는 3년 연속으로 최고상인 ‘에너지 대상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4Way’로다.

/김재용 기자 juk@

LG전자

11개 본상 휩쓸어

LG전자는 5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제품으로 에너지 위너상을 받았다.

LG전자는 제24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본상 11개를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5년간 업계 최다 수상 기록이다. 가전 시장에서 폭넓은 고효율 가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 받은 셈.

대상도 2개 받았다. LG전자 트롬 세탁기 씽큐는 에너지대상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나노셀 TV는 에너지대상을 수상했다. LG 트롬 세탁기 씽큐는 12kg 용량과 고효율을 모두 갖춰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고객에게 제격이다.

/김재용 기자

악성댓글 줄어 들고 신고·조치건수 감소세

연예·스포츠 댓글페이지 1년



네이버와 다음이 악성 댓글(악플)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 시행한 ‘연예·스포츠 뉴스 댓글 페이지’ 정책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양대 포털이 지난해 8월 연예·스포츠 기사를 댓글을 완전히 폐지한 후 포털에서는 악성댓글이 줄었다. 20일 현재 네이버, 다음에서 댓글 작성수 자체가 감소했고 인공지능(AI)에 걸리는 악성 댓글도 사라지고 있다. AI에 처리되는 악성댓글의 경우 네이버는 16%, 다음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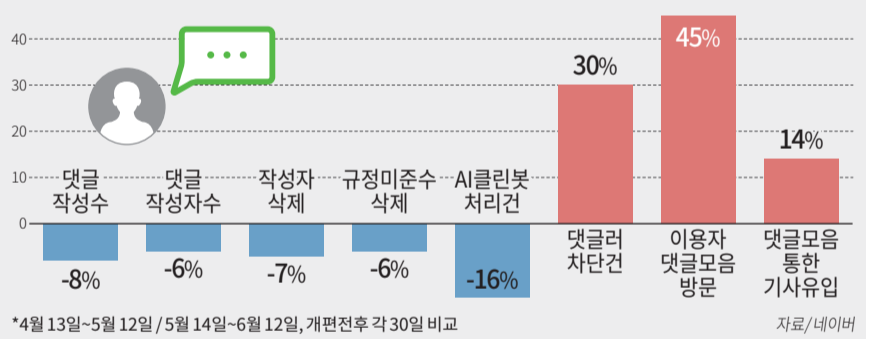
◆네이버, 프로필 공개 후 악성댓글 급감

네이버는 지난 8일 공식 블로그 ‘네이버 다이어리’를 통해 “자동 블라인드 하는 인공지능(AI) 클린봇의 처리 건수는 16% 감소했다”며 “인공지능(AI)으로 자동 블라인드 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통해 악성댓글 생산 감소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2019년 10월, 악성댓글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악성댓글 근절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했고, 현대건설 배구선수였던 고(故) 고유민의 극단적 선택 이후인 8월에는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를 종료했다.

네이버는 그동안 악성댓글을 감시하

네이버 프로필 사진 노출 강화 후 뉴스 댓글 활동 지표 변화



네이버 자동블라인드 처리 16% ↓ 작성자 프로필 공개정책 효과 커 댓글러 차단 횟수 300→500명으로

다음 신고기준에 ‘차별/혐오’ 추가 비속어 등 포함댓글 20% 이상 줄어

는 AI클린봇과 연예·스포츠 뉴스 댓글 폐지를 통해 악성댓글을 없애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뉴스 댓글 작성자 프로필 공개 정책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필 공개 이후로 전체 댓글 수는 8% 밖에 줄어들지 않았지만 AI 클린봇에 걸리는 악성댓글의 경우 3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필 사진을 통해 댓글 활동이 더 쉽게 식별될 수 있음을 고려해 댓글 작성자들이 표현을 더 신중히 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지난 8일부터 댓글러 차단 최대 횟수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향후 선호하는 ‘댓글러’ 활동을 팔로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악성댓글 감시 활동을 계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다음, 댓글 신고 기준에 ‘차별/혐오’ 항목 추가

다음은 운영 중인 카카오는 작년 6월,

뉴스 서비스 댓글 제재 강화 및 운영 정책 개편 후 악성 댓글 신고 및 조치가 증가했으며 점차 욕설 및 혐오 표현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2019년 10월 네이버보다 빠르게 연예 댓글을 없앴다. 또 댓글 신고 기준에 ‘차별/혐오’ 항목을 추가하고, ‘덧여두기’, ‘접기’ 등 댓글 영역의 노출을 관리하는 기능을 신설했다.

다음에서 악성댓글 대응 정책을 시행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성댓글 신고 및 조치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욕설 및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이 20% 이상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다. 카카오는 AI를 활용해 댓글의 욕설 및 비속어를 필터링해 음표 모양으로 바꿔주는 ‘욕설 음표 치환 기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댓글 개편 후 음표 치환된 댓글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현재 시행 중인 악성댓글 방지 정책은 ▲24시간 댓글 신고센터 운영 ▲댓글 작성 남용 방지 시스템 적용 ▲불법, 음란 등 유해 댓글 자동 필터 도입 ▲악성댓글 제재 강화, 혐오 및 차별 표현 제재 강화 등이다. 작년 12월부터는 AI 악성댓글 필터링 ‘세이프봇’을 적용해 악성댓글을 관리하고 있다.

/강준혁 기자 junhyuk@